

<서평>

이동하는 영웅과 자고들이 쌓아 올린 역사들
진 테일러 저. 여운경 옮김.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역사들』. 서울: 진인진 출판사, 2023.

송 승 원*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여운경 교수가 번역한 진 테일러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역사들』은 현재 우리가 인도네시아라 부르는 거대한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수하르토 시기의 격동기까지 2천여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낸 것이다. 2003년에 이 책이 출판된 이후 인도네시아사를 가르치는 전 세계의 학자들은 마침내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역사서의 등장에 환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 통사를 쓴다는 것은 너무나 도전적인 일 이어서 2001년에 출판된 리크레프스(M.C. Ricklefs)의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 1200년』 이후 유사한 시도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도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이주, 공동체와 왕국의 발전, 다양한 종교와 지식 체계의 도입, 유럽인의 도래와 식민, 그리고 공화국 수립 이후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시기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테일러는 수많은 기존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swsong@hufs.ac.kr

연구 문헌에서 학자들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수많은 씨실과 날실로 만들어 하나의 아름다운 패브릭으로 짰다. 또한 이 패브릭에 각 장의 내용에 부합하는 인물이나 사건, 문헌을 소개하는 94개의 미니 에세이를 보석 단추처럼 달아 넣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이토록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어떤 메타 내러티브 속에 위치되어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여운경 교수가 옮긴이의 글에서 밝혔듯, 이 책은 “왕조의 교체와 식민 지배,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한 일국사의 관점, 그리고 중심부(자바, 자카르타)와 정치 엘리트를 초점으로 한 정치사 중심의 서사에서 탈피해서 대중, 물질문화, 일상을 포함한 사회사적 시각으로 인도네시아 역사를 조망”한, 다층적, 사회문화사적 접근방식에 의거한 역사서술이다(p. 515). 테일러는 군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동성”을 키워드로 삼았다. 그녀는 역사의 에이전시로 이동하는 왕자, 성자, 학자, 보부상, 자고(strong men)들의 활약을 꼽았다. 그녀는 이들이 교류, 교환, 혼인, 전쟁, 반란, 동맹 등을 통해 종교, 통치, 저항 담론 등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점차 하나의 국민국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이를 보고 역사는 이 책을 “인도네시아 군도라는 느슨한 사회문화적 권역이 앤더슨이 말한 ‘상상된 공동체’ 즉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로 변해가는 한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그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복수성’과 ‘이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 놓은 것이라 평가했다(p. 522).

테일러는 자신의 멘토였던 존 스메일(John Smail)이 주창한 동남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사관”을 기반으로, 유럽 세력이 기존 관점에서처럼 동남아시아의 무역 질서를 뒤흔들어 인도네시아의 전신을 창조한 절대 세력이 아니라 막강하게 구축되어 있던 무역 네트워크에 올라탔을 뿐인 또 하나의 “자고”로 그리고 있다. 또한 테일러는 개별적 역사를 지닌 종족, 왕국 공동체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긴 역사적 호흡 속에서 바라보았지만, 결코 민족주의적 사관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책의 곳곳에 인도네시아의 국사 서술에서 보이는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심각한 역사서술의 오류를 암암리에 비판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카르노와 야민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마자파힛과 스리위자야 등의 왕조를 인도네시아의 전신으로 간주하면서 두 왕국이 군도에 미친 영향력을 “영토적 통일성”으로 해석하는 민족사관을 비판하며, 일각에 드막이나 파사이와 같은 왕조들을 국가의 전신으로 해야 한다는 대안적 시각이 존재함을 설명한다(pp. 135-136). 또한 네덜란드 식민 통치가 350년가량 지속되었고 군도인들은 일괄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의 희생자였다는 식의 민족사 서술은 19세기 이전 왕조들의 자율적 역사를 무시하고 서양의 영향을 수용해 창의적 융합을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인물의 노력을 헛되이 한다고 비판한다(pp. 183-4).

테일러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계급, 종족, 인종, 젠더 배경의 다채로운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발턴 역사서술 접근방식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비주류의, 또는 저항적 역사와 담론에 대해서도 많은 공간을 할애해 설명한다. 테일러가 ‘자고’란 누군가에게 악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다고 설명한 부분(p. 219)에서 암시되듯, 그녀는 국사 속 영웅(pahlawan) 들과 대비되어 “민족의 배신자(pengkhianat nasional)”로 취급되며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졌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동맹을 맺었던 17세기 부기스족의 영웅 아룡 팔라카나 반텐의 라텐 하지는 자신들에게 패배했지만 민족 영웅으로 기억되는 술탄 하사누딘이나 술탄 아쟁과 동등한 자격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책에 등장한다. 사회주의자 탄말라카나 다룰 이슬람 봉기를 일으킨 카르 투수위르요 등도 반체제 인사가 아닌, 그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진 사상가로 등장한다. 인도네시아 국사에서는 전혀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영국 여성 크툽 탄투리는 “단독 혁명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책에 소개된다. 테일러는 민족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방인 트르나테의 역사 서술에서도 제외된 나칠리 보키 라자가 어떻게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 독점의 왕권에 도전하기 위해 당시 강력한 자고였던 포르투갈 세력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도나 이사벨이라는 이름으로 세레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군도의 아랍인, 중국인, 유럽인들 역시 때로는 자고의 모습으로, 때로는 군도를 활기차게 만든 이방인들로 설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역사란 각기 다른 배경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와 개인들이 함께 구축한 역사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이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시기를 <마자파히트 비전>이라는 마지막 한 장으로 짧게 요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또한 자바 중심적 역사서술을 지양하며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많은 지역의 역사를 고루 등장시킨 반면 누사퉁가라 지역은 유독 적게 소개하고 있는 점도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여타의 인도네시아 개론서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과 인물들이 객관적이고 역동적인 시선으로 그려지고, 이들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이 나무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면 마침내 거대한 인도네시아라는 숲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책이 지닌 매력일 것이다.